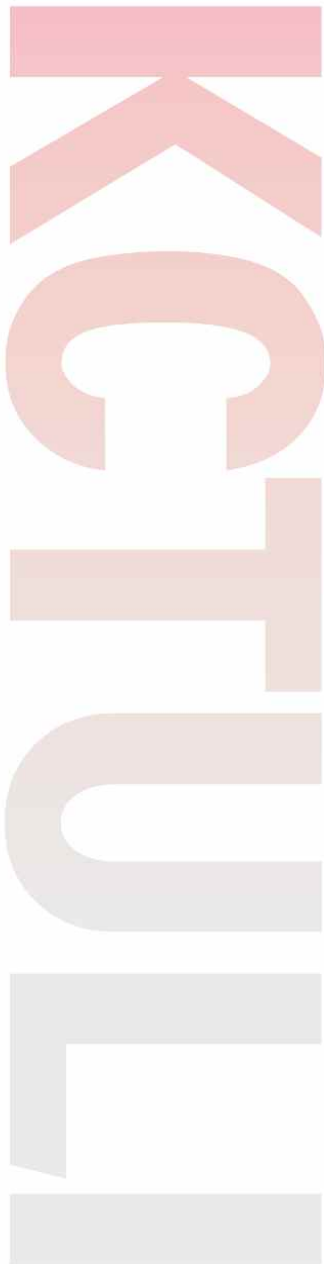




2023년 전국 체감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3. 5.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i
Ⅰ. 서론	1
Ⅱ. 주요 분석 결과	
1. 응답자 개인 및 소속 직장 특성	2
2. 응답 노동자 가구별 특성	10
3. 체감경기 :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과 실직 경험	17
4. 체감물가	23
5. 생계비	26
6. 응답 노동자 임금의 가게 내 역할	30
7.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34
8.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	40
9.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	44
Ⅲ. 요약 및 시사점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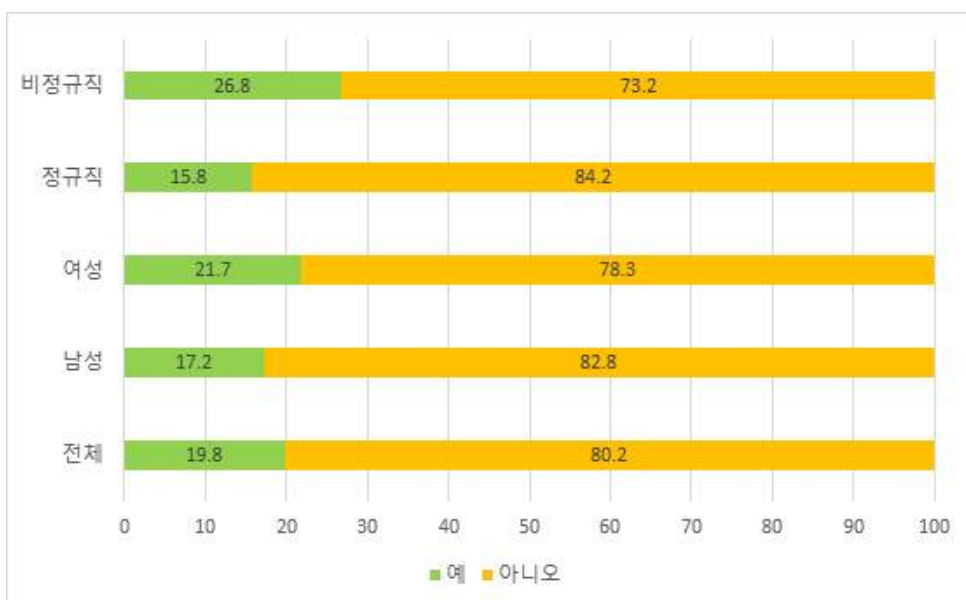
요약

민주노총은 2023년 3월 20일 ~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 및 임금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적인 온라인 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 무직자, 사업주 등을 제외하고, 미조직 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자 중 거의 절반(49.8%)이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며, 역시 절반가량(50.2%)이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4명 중 1명(23.6%)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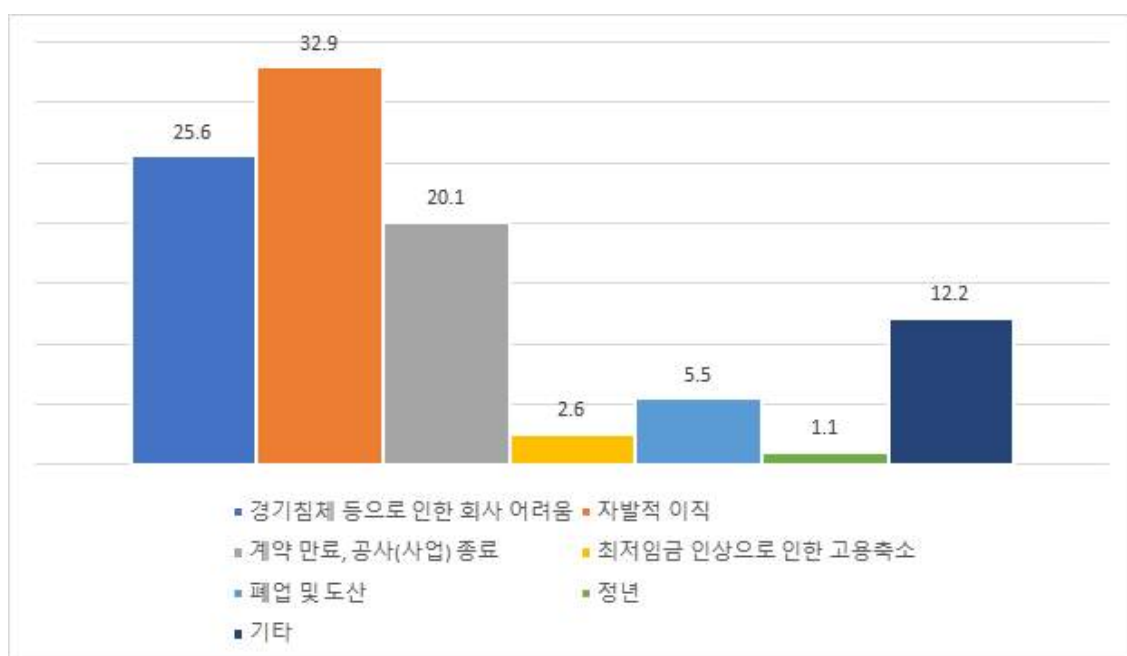
둘째,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 비중은 약 5명 중 1명(19.8%)꼴로 나타났다. 여성(21.7%)이 남성(17.2%)보다, 비정규직(26.8%)이 정규직(15.8%)보다 실직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전체, 성별, 고용형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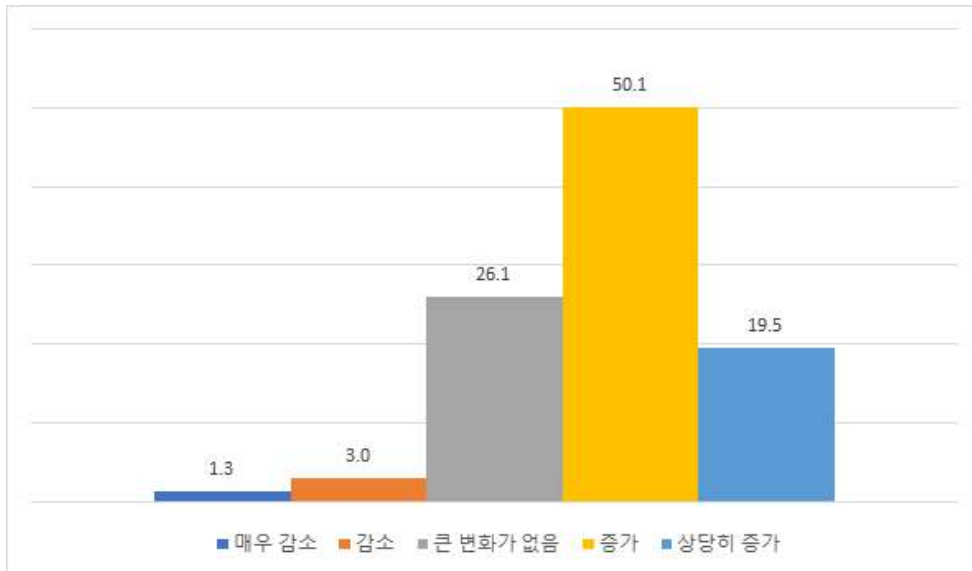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꼽은 가장 중요한 실직 사유는 ‘자발적 이직’(32.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 어려움’(25.6%),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20.1%) 등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는 2.6%에 불과했다.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실직 사유로 꼽은 비율은 3%대 미만이었다.

[그림 2] 실직 경험자의 가장 중요한 실직 사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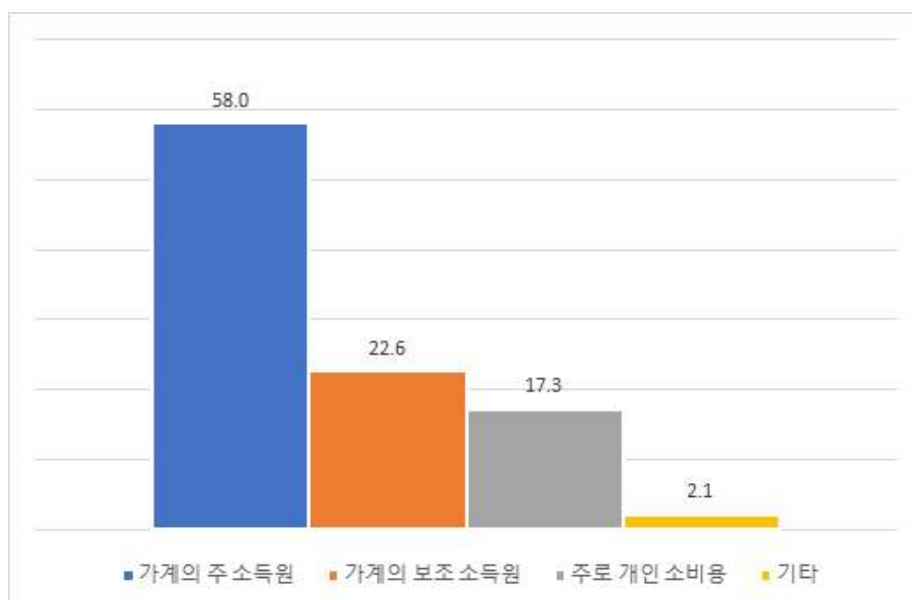
셋째, 10명 중 7명(69.6%)은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증가+상당히 증가)고 응답했다 ([그림 3] 참조). 규모가 작은 가구일수록 생활비 증가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1인 가구에서는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증가+상당히 증가)고 답변한 비율이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지난 1년간 물가가 상승(매우 상승+상승)했고, 앞으로 1년간 물가도 상승(매우 상승+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많이 오른 항목으로는 난방비·전기세(40.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식비(33.9%)가 순위로 꼽혔다.

[그림 3] 작년 대비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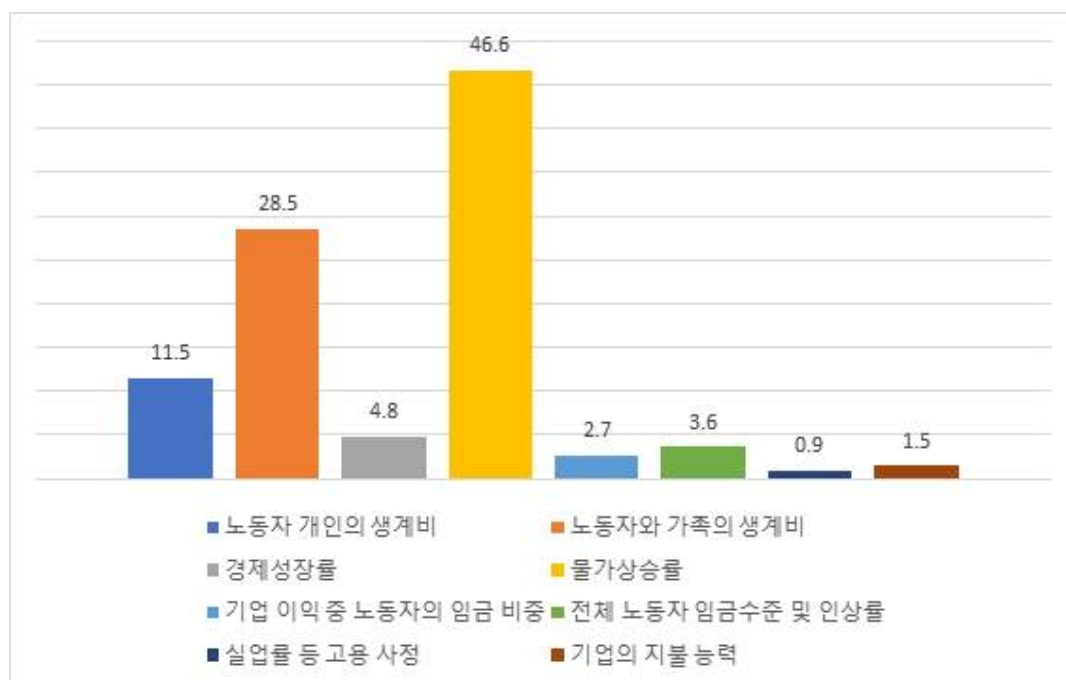
넷째, 본인 임금이 가게의 주 소득원 또는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자 10명 중 8명(80.6%)이었으며,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7.3%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게의 주 소득원’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69.6%)이었는데, 이는 상당수 고령 노동자들이 본인 임금만으로 전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응답자 임금의 가게 내 역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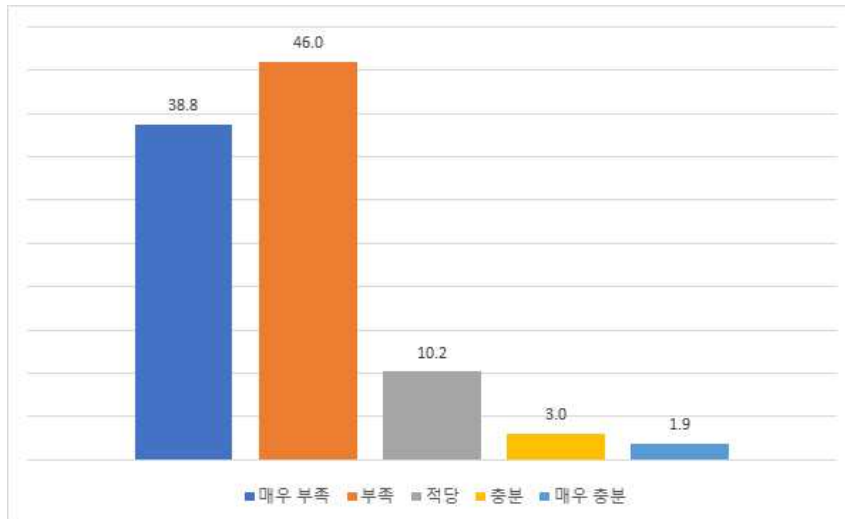
다섯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46.6%)과 생계비(40.0%)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계비 중에서는 ‘노동자와 가족 생계비’(28.5%)에 대한 응답률이 ‘노동자 개인 생계비’(1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남성은 생계비(46.5%), 여성은 물가상승률(52.9%)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는 물가상승률, 4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생계비에 대한 선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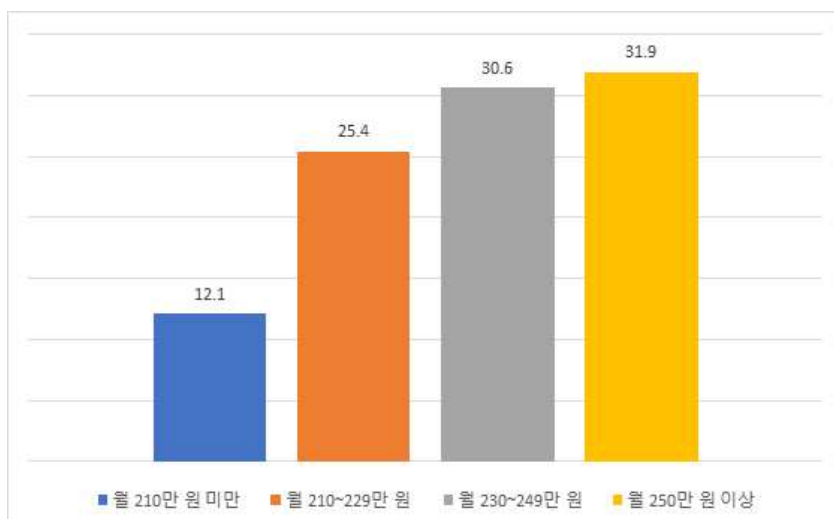
여섯째, 10명 중 8~9명(84.8%)은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 58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부족 46.0% + 매우 부족 38.8%)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한편,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현행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10명 중 9명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6] 2023년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 여부 (단위: %)



일곱째, 2024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월 250만 원 이상(시급 12,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 230~249만 원(시급 11,000~11,900원)’이 30.6%로 나타났다. 대략 노동자 3명 중 2명(62.5%)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 원(시급 약 11,000원) 이상을 꼽았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 230~249만 원’(28.7%)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제외한 2인 이상 규모 가구에서는 ‘월 250만 원 이상’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7]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 (단위: %)



결론적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조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 서론

민주노총은 2023년 3월 20일 ~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경기 및 임금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은 서베이몽키(SurveyMonkey)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주된 방식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표 1〉 조사 개요

조사 명칭	2023년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설문조사
조사 시기	2023년 3월 20일 ~ 4월 28일
조사 방법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병행. 온라인 조사가 주요한 방식

주요 조사 내용은 △ 체감물가, 실직 경험 등 경제 현실 △ 생계비, 최저임금 적정 수준 등 최저임금 관련 쟁점 △ 휴게시설, 연차휴가 등 노동조건 실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도 설문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조사 내용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먼저, 경제 현실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은 내용상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한편, 노동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은 별도의 보고서로 6월 중에 발행할 계획이다.

본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7,509명이었다. 이중 현재 일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기 위해,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였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조합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직 노동자가 아닌 미조직 노동자가 현재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동일 IP를 사용하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일하여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두 제외하였다. 이렇게 해서,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전체 표본 수는 5,377명이다. 응답자의 지역 분포는 서울이 36.5%로 가장 높고, 경기(13.8%), 경남(10.5%), 인천(7.3%) 등의 순이다.

〈표 2〉 응답자 거주지(지역) 현황

지역	참여자 수(명)	비율(%)
서울	1,964	36.5
경기	741	13.8
인천	394	7.3
충북	248	4.6
세종	11	0.2
충남	61	1.1
대전	201	3.7
전북	103	1.9
광주	211	3.9
전남	93	1.7
부산	318	5.9
울산	165	3.1
경남	566	10.5
대구	165	3.1
경북	83	1.5
강원	9	0.2
제주	44	0.8
합계	5,377	100.0

Ⅱ. 주요 분석 결과

1. 응답자 개인 및 소속 직장 특성

응답 노동자(5,377명)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2,344명, 여성이 3,020명, 그 외의 성이 13명으로, 그 비율은 각각 43.6%, 56.2%, 0.2%이다. 연령으로는 30대가 35.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4.9%, 20대가 18.8%, 50대가 14.7%, 60세 이상이 5.2%를 차지했다.

〈표 3〉 성·연령별 구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2,344	43.6
	여성	3,020	56.2
	그 외의 성	13	0.2
연령	20세 미만	29	0.5
	20~30세 미만	1,009	18.8
	30~40세 미만	1,928	35.9
	40~50세 미만	1,340	24.9
	50~60세 미만	791	14.7
	60세 이상	280	5.2
합계		5,377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66.0%, 비정규직 31.0%, 기타 3.0%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응답자 분포는 5인~19인 사업체 소속 노동자 비율이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인~99인(24.9%), 100인~299인(14.1%) 순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응답자 비중은 10.6%로 집계됐다. 거의 절반(49.8%)에 달하는 응답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었다.

〈표 4〉 고용형태·사업체 규모별 구성(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고용형태	정규직	3,547	66.0
	비정규직	1,667	31.0
	(특수고용·프리랜서)	274	5.1
	기타(무응답 포함)	163	3.0
	소계	5,377	10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571	10.6
	5인~19인	1,414	26.3
	20인~29인	693	12.9
	30인~99인	1,338	24.9
	100인~ 299인	755	14.1
	300인 이상	598	11.1
	소계	5,369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고용형태 구성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남성은 정규직 65.9%, 비정규직 31.8%, 기타 2.3%, 여성은 정규직 66.1%, 비정규직 30.4%, 기타 3.6%로 나타났다.

〈표 5〉 고용형태 구성(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정규직	1,545	65.9	1,995	66.1
비정규직	746	31.8	917	30.4
기타	53	2.3	108	3.6
합계	2,344	100.0	3,02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사업체 규모 구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19인 사업체 소속 비율이 28.1%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30~99인이 25.8%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비중은 남성(9.0%)보다 여성(11.8%)이 더 많았다. 응답자가 종사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가 속한 산업 부문은 민간 제조 부문(34.2%), 민간 서비스 부문(25.9%), 공공 부문(8.3%), 건설(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사업체 규모 구성(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210	9.0	357	11.8
5인~19인	657	28.1	755	25.0
20인~29인	340	14.5	352	11.7
30인~99인	556	23.7	779	25.8
100인~ 299인	337	14.4	416	13.8
300인 이상	242	10.3	355	11.8
합계	2,342	100.0	3,014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표 7〉 현재 일하고 있는 산업 부문 구성(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민간 제조 부문	1,839	34.2
민간 서비스 부문	1,390	25.9
공공 부문	444	8.3
건설	276	5.1
기타(무응답 포함)	1,428	26.6
합계	5,377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현재 주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근속 기간은 2년 이상이 53.7%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29.3%, 1년~2년 미만이 16.9%로 나타났다. 본업과 관련된 전체 경력 기간도 2년 이상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이 15.5%, 1년~2년 미만이 1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근속·경력 구성(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근속	1개월 미만	191	3.6
	1개월~3개월 미만	386	7.2
	3개월~1년 미만	1,001	18.6
	1년~2년 미만	909	16.9
	2년 이상	2,890	53.7
	소계	5,377	100.0
경력	1개월 미만	158	2.9
	1개월~3개월 미만	161	3.0
	3개월~1년 미만	510	9.5
	1년~2년 미만	641	12.0
	2년 이상	3,887	72.6
	소계	5,357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근속 기간 구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2년 이상’ 비율은 여성(50.5%)보다 남성(58.0%)이 더 많았고, ‘1년 미만’ 비율은 여성(30.5%)이 남성(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 근속 구성(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개월 미만	77	3.3	111	3.7
1개월~3개월 미만	135	5.8	247	8.2
3개월~1년 미만	440	18.8	561	18.6
1년~2년 미만	332	14.2	575	19.0
2년 이상	1,360	58.0	1,526	50.5
합계	2,344	100.0	3,02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현재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응답자 비중은 50.2%였다.

〈표 10〉 산업단지 근무 여부(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예	2,697	50.2
아니오	2,680	49.8
합계	5,377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200~3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0~400만 원 미만(20.4%), 100~200만 원 미만(19.3%) 순으로 나타났다. 대략 응답자 4명 중 1명(23.6%)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표 11〉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186	3.6	23.6
100~200만 원 미만	1,036	20.0	
200~300만 원 미만	2,331	45.1	
300~400만 원 미만	1,098	21.2	
400~500만 원 미만	311	6.0	
500만 원 이상	212	4.1	
합계	5,174	100.0	

주: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500만 원 이상'은 '500~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을 합한 값임

성별에 따라 월 평균임금 분포를 살펴보면(〈표 12〉 참조), 여성 응답자 약 3명 중 1명(32.5%)은 '200만 원 미만'으로 남성(12.1%)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48	2.1	138	4.8
100~200만 원 미만	227	10.0	804	27.7
200~300만 원 미만	828	36.6	1,500	51.7
300~400만 원 미만	794	35.1	304	10.5
400~500만 원 미만	239	10.6	71	2.4
500만 원 이상	127	5.6	83	2.9
합계	2,263	100.0	2,90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3) '500만 원 이상'은 '500~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을 합한 값임

고용형태별로 월 평균임금 분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10명 중 거의 4명(39.1%)은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정규직은 15.8%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가장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200~300만 원 미만'이었다.

〈표 13〉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47	1.4	139	8.0
100~200만 원 미만	493	14.4	543	31.1
200~300만 원 미만	1,699	49.6	632	36.2
300~400만 원 미만	774	22.6	324	18.5
400~500만 원 미만	253	7.4	58	3.3
500만 원 이상	161	4.7	51	2.9
합계	3,427	100.0	1,747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비정규직에는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계산함

3) '500만 원 이상'은 '500~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을 합한 값임

사업체 규모별로 월 평균임금 분포를 살펴보면(〈표 14〉 참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거의 2명 중 1명(45.0%), 5~19인 사업체 노동자는 약 4명 중 1명(25.8%), 20~29인 사업체 노동자는 약 5명 중 1명(20.6%)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표 14〉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사업체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100만 원 미만	63
	100~200만 원 미만	179
	200~300만 원 미만	189
	300~400만 원 미만	61
	400~500만 원 미만	29
	500만 원 이상	16
	소계	537
5~19인	100만 원 미만	59
	100~200만 원 미만	293
	200~300만 원 미만	610
	300~400만 원 미만	270
	400~500만 원 미만	70
	500만 원 이상	62
	소계	1,364
20~29인	100만 원 미만	17
	100~200만 원 미만	121
	200~300만 원 미만	287
	300~400만 원 미만	199
	400~500만 원 미만	32
	500만 원 이상	13
	소계	669
30~99인	100만 원 미만	26
	100~200만 원 미만	218
	200~300만 원 미만	666
	300~400만 원 미만	277
	400~500만 원 미만	79
	500만 원 이상	36
	소계	1,302
100~299인	100만 원 미만	9
	100~200만 원 미만	127
	200~300만 원 미만	325
	300~400만 원 미만	177
	400~500만 원 미만	47
	500만 원 이상	41
	소계	726
300인 이상	100만 원 미만	11
	100~200만 원 미만	96
	200~300만 원 미만	253
	300~400만 원 미만	113
	400~500만 원 미만	54
	500만 원 이상	44
	소계	571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500만 원 이상'은 '500~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 응답을 합한 값임

최근 한 달 동안 1주 평균 노동시간은 ‘36~40시간’이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1~52시간’(31.2%), 52시간 초과(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최근 한 달 1주 평균 노동시간(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5시간 미만	111	2.4
15~35시간	271	5.9
36~40시간	2,518	54.4
41~52시간	1,447	31.2
52시간 초과	284	6.1
합계	4,631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1주 평균 노동시간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36~40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비율은 각각 45.9%, 61.4%로 여성 응답률이 더 높았다. ‘41~52시간’ 비율의 경우, 남성(40.6%)이 여성(23.5%)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52시간 초과’ 노동을 한다는 비율도 여성(3.8%)보다 남성(8.8%) 비율이 더 높았다.

〈표 16〉 최근 한 달 1주 평균 노동시간 분포(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5시간 미만	39	1.9	71	2.8
15~35시간	58	2.8	212	8.4
36~40시간	966	45.9	1,545	61.4
41~52시간	855	40.6	592	23.5
52시간 초과	186	8.8	95	3.8
합계	2,104	100.0	2,515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1주 평균 노동시간 분포를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36~40시간이 각각 59.1%, 44.9%로 가장 많았다. ‘41~52시간’ 비율의 경우, 정규직이 30.0%, 비정규직이 33.8%로 나타났다. 한편, ‘52시간 초과’ 노동을 한다는 비율은 정규직 6.2%, 비정규직 6.0%였다.

〈표 17〉 1주 평균 노동시간 분포(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5시간 미만	53	1.7	58	3.7
15~35시간	92	3.0	179	11.5
36~40시간	1,821	59.1	697	44.9
41~52시간	923	30.0	524	33.8
52시간 초과	191	6.2	93	6.0
합계	3,080	100.0	1,551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비정규직에는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계산함

2. 응답 노동자 가구별 특성

응답 노동자의 가구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4인 가구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인 가구(24.8%), 1인 가구(22.1%), 2인 가구(17.7%), 5인 이상 가구(7.9%) 순이었다.

〈표 18〉 가구 규모별 분포(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1,188	22.1
2인	954	17.7
3인	1,331	24.8
4인	1,478	27.5
5인 이상	426	7.9
합계	5,377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가구 규모의 구성을 살펴보면(〈표 19〉 참조), 남성의 경우 3인 가구가 28.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4인 가구가 28.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1.7%, 22.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19〉 가구 규모별 분포(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509	21.7	676	22.4
2인	408	17.4	543	18.0
3인	673	28.7	656	21.7
4인	599	25.6	874	28.9
5인 이상	155	6.6	271	9.0
합계	2,344	100.0	3,02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고용형태별로 가구 규모 구성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4인 가구 비율이 29.1%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은 3인 가구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은 정규직(23.1%)이 비정규직(20.1%)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표 20〉 가구 규모 분포(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821	23.1	367	20.1
2인	612	17.3	342	18.7
3인	794	22.4	537	29.3
4인	1,031	29.1	447	24.4
5인 이상	289	8.1	137	7.5
합계	3,547	100.0	1,83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비정규직에는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계산함

함께 사는 가족 중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이하 소득원 수) 분포는 2인인 경우가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인(38.6%), 3인 이상(21.1%) 순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표 21〉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 분포(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2,077	38.6
2인	2,171	40.4
3인	702	13.1
4인	338	6.3
5인 이상	89	1.7
합계	5,377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소득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인이 49.2%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인이 45.0%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2인이 41.1%로 가장 많았고, 1인은 36.6%였다. 비정규직은 1인이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인이 39.0%로 나타났다. 본인 임금만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득원 수 1인’ 가구의 비율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2〉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 수 분포(성별·고용형태별)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1인	1,154	49.2	918	30.4	1,298	36.6	779	42.6
2인	807	34.4	1,359	45.0	1,457	41.1	714	39.0
3인	232	9.9	470	15.6	489	13.8	213	11.6
4인	106	4.5	230	7.6	239	6.7	99	5.4
5인 이상	45	1.9	43	1.4	64	1.8	25	1.4
합계	2,344	100.0	3,020	100.0	3,547	100.0	1,83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3) 비정규직에는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계산함

‘최근 3개월 평균 월 가구 총소득’은 본인 임금 포함하여 ‘200~300만 원 미만’이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400만 원 미만(20.4%), 400~500만 원 미만(15.3%) 순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3〉 최근 3개월 평균 월 가구 총소득 분포(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86	1.7
100~200만 원 미만	384	7.4
200~300만 원 미만	1,218	23.5
300~400만 원 미만	1,095	21.2
400~500만 원 미만	825	15.9
500~600만 원 미만	633	12.2
600만 원 이상	933	18.0
합계	5,174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교차분석)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구분하여 가구 총소득을 살펴보면(〈표 24〉 참조), 여성 노동자는 가구 총소득이 ‘200~3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는데, 남성 노동자는 ‘300~4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여성 노동자가 ‘600만 원 이상’(20.9%), 남성 노동자는 ‘200~300만 원 미만’(16.3%)으로 나타났다.

〈표 24〉 최근 3개월 평균 월 가구 총소득 분포(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100만 원 미만	33	1.5	52	1.8
100~200만 원 미만	119	5.3	262	9.0
200~300만 원 미만	491	21.7	725	25.0
300~400만 원 미만	670	29.6	424	14.6
400~500만 원 미만	351	15.5	473	16.3
500~600만 원 미만	273	12.1	359	12.4
600만 원 이상	326	14.4	605	20.9
합계	2,263	2,900	100.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가구 총소득을 가구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25〉 참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200~300만 원 미만’이 각각 53.2%, 25.7%로 가장 많았고, 3인 가구의 경우 ‘300~400만 원 미만’이 31.5%로 가장 높았다.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6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는데, 비율은 각각 31.3%, 31.9%로 나타났다.

〈표 25〉 최근 3개월 평균 월 가구 총소득 분포(가구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100만 원 미만	32	2.8
	100~200만 원 미만	181	15.7
	200~300만 원 미만	612	53.2
	300~400만 원 미만	213	18.5
	400~500만 원 미만	64	5.6
	500~600만 원 미만	21	1.8
	600만 원 이상	27	2.3
	소계	1,150	100.0
2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6	1.7
	100~200만 원 미만	91	9.9
	200~300만 원 미만	236	25.7
	300~400만 원 미만	192	20.9
	400~500만 원 미만	152	16.6
	500~600만 원 미만	118	12.9
	600만 원 이상	112	12.2
	소계	917	100.0
3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2	0.9
	100~200만 원 미만	51	4.0
	200~300만 원 미만	179	14.0
	300~400만 원 미만	404	31.5
	400~500만 원 미만	229	17.9
	500~600만 원 미만	186	14.5
	600만 원 이상	220	17.2
	소계	1,281	100.0
4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5	1.1
	100~200만 원 미만	39	2.8
	200~300만 원 미만	133	9.4
	300~400만 원 미만	234	16.5
	400~500만 원 미만	306	21.6
	500~600만 원 미만	247	17.4
	600만 원 이상	444	31.3
	소계	1,418	100.0
5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미만	11	2.7
	100~200만 원 미만	22	5.4
	200~300만 원 미만	58	14.2
	300~400만 원 미만	52	12.7
	400~500만 원 미만	74	18.1
	500~600만 원 미만	61	15.0
	600만 원 이상	130	31.9
	소계	408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고용형태별로 가구 총소득을 살펴보면(〈표 26〉 참조), 정규직은 ‘200~300만 원 미만’이 22.8%로 가장 많았고, ‘6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1.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비정규직은 ‘300~400만 원 미만’이 2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25.3%)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총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정규직은 6.0%인데, 비정규직은 13.9%에 달해, 양자 간 격차는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6〉 최근 3개월 평균 월 가구 총소득 분포(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34	1.0	35	2.2
100~200만 원 미만	170	5.0	187	11.7
200~300만 원 미만	783	22.8	404	25.3
300~400만 원 미만	658	19.2	411	25.7
400~500만 원 미만	578	16.9	225	14.1
500~600만 원 미만	458	13.4	167	10.4
600만 원 이상	746	21.8	170	10.6
합계	3,427	100.0	1,599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사업체 규모별로 가장 비율이 높은 가구 총소득 구간을 살펴보면(〈표 27〉 참조), 5인 미만, 5~19인, 30~99인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200~3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율은 각각 22.0%, 23.5%, 29.0%였다. 20~29인 사업체 노동자는 ‘300~400만 원 미만’에 대한 응답률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600만 원 이상’이 각각 23.3%, 27.3%로 가장 높았다.

〈표 27〉 최근 3개월 평균 가구 총소득 분포(사업체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100만 원 미만	29
	100~200만 원 미만	71
	200~300만 원 미만	118
	300~400만 원 미만	103
	400~500만 원 미만	92
	500~600만 원 미만	53
	600만 원 이상	71
	소계	537
5~19인	100만 원 미만	22
	100~200만 원 미만	104
	200~300만 원 미만	321
	300~400만 원 미만	307
	400~500만 원 미만	218
	500~600만 원 미만	167
	600만 원 이상	225
	소계	1,364
20~29인	100만 원 미만	11
	100~200만 원 미만	56
	200~300만 원 미만	142
	300~400만 원 미만	189
	400~500만 원 미만	95
	500~600만 원 미만	84
	600만 원 이상	92
	소계	669
30~99인	100만 원 미만	12
	100~200만 원 미만	69
	200~300만 원 미만	378
	300~400만 원 미만	268
	400~500만 원 미만	205
	500~600만 원 미만	151
	600만 원 이상	219
	소계	1,302
100~299인	100만 원 미만	7
	100~200만 원 미만	42
	200~300만 원 미만	146
	300~400만 원 미만	134
	400~500만 원 미만	129
	500~600만 원 미만	99
	600만 원 이상	169
	소계	726
300인 이상	100만 원 미만	5
	100~200만 원 미만	42
	200~300만 원 미만	111
	300~400만 원 미만	93
	400~500만 원 미만	85
	500~600만 원 미만	79
	600만 원 이상	156
	소계	571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3. 체감경기: 사업장 경영상 어려움과 실직 경험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 비중은 약 5명 중 1명(19.8%)꼴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21.7%)이 남성(17.2%)보다 실직 경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중이 15.8%인데, 비정규직은 26.8%로 양자 간 격차는 11.0%포인트에 달했다.

〈표 28〉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예	1,037	19.8
아니오	4,198	80.2
합계	5,235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29〉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예	394	17.2	638	21.7
아니오	1,895	82.8	2,297	78.3
합계	2,289	100.0	2,935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표 30〉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예	548	15.8	434	26.8
아니오	2,917	84.2	1,186	73.2
합계	3465	100.0	162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사업체 규모별로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을 살펴보면(〈표 31〉 참조), 소규모 사업체 소속 노동자일수록 실직 경험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27.5%, 5~19인 사업체 노동자의 22.3%는 실직 경험이 있었다. 20인 이상 사업체 소속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31〉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사업체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예	149	27.5
	아니오	393	72.5
	소계	542	100.0
5~19인	예	308	22.3
	아니오	1,072	77.7
	소계	1,380	100.0
20~29인	예	101	14.9
	아니오	578	85.1
	소계	679	100.0
30~99인	예	235	18.0
	아니오	1,074	82.0
	소계	1,309	100.0
100~299인	예	137	18.6
	아니오	599	81.4
	소계	736	100.0
300인 이상	예	106	18.2
	아니오	478	81.8
	소계	584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가장 중요한 실직 이유로는 ‘자발적 이직’이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 어려움’(24.6%),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라고 응답한 비중은 2.6%에 불과했다.

〈표 32〉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꼽은 가장 중요한 실직 사유(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가 어렵다고	265	25.6
자발적 이직	341	32.9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208	20.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27	2.6
폐업 및 도산	57	5.5
정년	11	1.1
기타	126	12.2
합계	1,035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33〉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 여부(사업체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가 어렵다고	46	30.9
	자발적 이직	41	27.5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29	19.5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5	3.4
	폐업 및 도산	6	4.0
	정년	3	2.0
	기타	19	12.8
	소계	149	100.0
5~1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가 어렵다고	70	22.8
	자발적 이직	106	34.5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51	16.6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8	2.6
	폐업 및 도산	21	6.8
	정년	4	1.3
	기타	47	15.3
	소계	307	100.0
20~2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가 어렵다고	40	39.6
	자발적 이직	25	24.8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11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3	3.0
	폐업 및 도산	5	5.0
	정년	3	3.0
	기타	14	13.9
	소계	101	100.0
30~9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가 어렵다고	60	25.5
	자발적 이직	85	36.2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54	23.0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6	2.6
	폐업 및 도산	7	3.0
	정년	0	0.0
	기타	23	9.8
	소계	235	100.0
100~29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가 어렵다고	28	20.4
	자발적 이직	52	38.0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29	21.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1	0.7
	폐업 및 도산	15	10.9
	정년	1	0.7
	기타	11	8.0
	소계	137	100.0
300인 이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가 어렵다고	21	20.0
	자발적 이직	31	29.5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34	32.4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4	3.8
	폐업 및 도산	3	2.9
	정년	0	0.0
	기타	12	11.4
	소계	105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사업체 규모별로 실직 사유를 살펴보면(〈표 33〉 참조), 5인 미만, 20~29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회사 어려움’이 각각 30.9%, 39.6%로 가장 많았고, 5~19인, 30~99인, 100~299인은 ‘자발적 이직’이 각각 34.5%, 36.2%,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은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32.4%)가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를 실직 사유로 응답한 비율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3%대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는 약 3명 중 1명 이상(34.2%)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성별로 구분하여, 지난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표 35〉 참조), 여성(35.2%)이 남성(32.9%)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지난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표 36〉 참조), 정규직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중이 36.2%인데, 비정규직은 19.7%로 정규직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4〉 지난 2년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 경험 여부(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예	1,782	34.2
아니오	3,423	65.8
합계	5,205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35〉 지난 2년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 경험 여부(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예	747	32.9	1,029	35.2
아니오	1,526	67.1	1,892	64.8
합계	2,273	100.0	2,921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표 36〉 지난 2년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 경험 여부(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예	1,248	36.2	477	29.7
아니오	2,204	63.8	1,129	70.3
합계	3,452	100.0	1,606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사유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67.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자재값 상승’(14.4%) 등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꼽은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표 37〉 지난 2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사유(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1,220	67.7
원자재값 상승	260	14.4
임대료 상승	40	2.2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21	1.2
최저임금 인상	79	4.4
기타	182	10.1
합계	1,802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서 현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표 38〉 참조), 규모에 상관없이 제1순위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제2순위는 ‘원자재값 상승’이 꼽혔다. 한편,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사유로 응답한 비율은 4%대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38〉 지난 2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사유(사업체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65.6
	원자재값 상승	13.1
	임대료 상승	2.9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0.8
	최저임금 인상	3.7
	기타	13.9
	소계	100.0
5~1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70.6
	원자재값 상승	13.7
	임대료 상승	2.2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0.6
	최저임금 인상	3.6
	기타	9.3
	소계	100.0
20~2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72.2
	원자재값 상승	13.5
	임대료 상승	4.3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1.3
	최저임금 인상	2.2
	기타	6.5
	소계	100.0
30~9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65.9
	원자재값 상승	15.3
	임대료 상승	1.0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1.2
	최저임금 인상	4.9
	기타	11.6
	소계	100.0
100~299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60.3
	원자재값 상승	16.7
	임대료 상승	1.9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1.2
	최저임금 인상	9.7
	기타	10.1
	소계	100.0
300인 이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71.9
	원자재값 상승	13.8
	임대료 상승	1.8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3.0
	최저임금 인상	1.2
	기타	8.4
	소계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4. 체감물가

약 10명 중 7명(69.6%)은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증가+상당히 증가)고 응답했다. 반면, 생활비가 감소했다(매우 감소 + 감소)고 응답한 비중은 4.3%에 불과했다.

〈표 39〉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 분포(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감소	65	1.3	4.3
감소	153	3.0	
큰 변화가 없음	1,353	26.1	
증가	2,592	50.1	69.6
상당히 증가	1,011	19.5	
합계	5,174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구분하여, 작년과 비교한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0.5%,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9%, 70.0%로 가장 많았다.

〈표 40〉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 분포(성별·고용형태별)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감소	76	3.4	140	4.8	100	2.9	102	6.4
큰 변화 없음	591	26.1	758	26.1	931	27.2	378	23.6
증가	1,596	70.5	2,002	69.0	2,396	69.9	1,119	70.0
합계	2,263	100.0	2,900	100.0	3,427	100.0	1,599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 3)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 4) ‘감소’는 ‘매우 감소 + 감소’, ‘증가’는 ‘상당히 증가 + 증가’

가구 규모별로 작년 동월 대비 생활비가 증가했다(상당히 증가 + 증가)고 답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1인 가구 72.8%, 2인 가구 69.5%, 5인 이상 가구 65.0%, 3인 가구 64.2%, 4인 가구 6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가구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매우 감소	27	1.3
	감소	42	2.1
	큰 변화가 없음	477	23.7
	증가	1,086	54.0
	상당히 증가	379	18.8
	소계	2011	100.0
2인 가구	매우 감소	22	1.1
	감소	61	2.9
	큰 변화가 없음	554	26.5
	증가	1,021	48.9
	상당히 증가	430	20.6
	소계	2088	100.0
3인 가구	매우 감소	8	1.2
	감소	33	4.9
	큰 변화가 없음	199	29.7
	증가	316	47.2
	상당히 증가	114	17.0
	소계	670	100.0
4인 가구	매우 감소	5	1.6
	감소	15	4.7
	큰 변화가 없음	99	30.7
	증가	139	43.2
	상당히 증가	64	19.9
	소계	322	100.0
5인 이상 가구	매우 감소	3	3.6
	감소	2	2.4
	큰 변화가 없음	24	28.9
	증가	30	36.1
	상당히 증가	24	28.9
	소계	83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생활비 항목으로는 난방비·전기세를 꼽은 응답자가 4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식비(33.9%)로 나타났다. 이자 및 원리금 상환과 주거비는 각각 8.4%, 6.8%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표 42〉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생활비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비(월세 등)	363	7.0
난방비·전기세	2,169	41.9
식비	1,824	35.3
교통비	76	1.5
교육비	127	2.5
보건비	23	0.4
여가생활	141	2.7
이자 및 원리금 상환	451	8.7
합계	5,174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94.2%)은 지난 1년간 물가가 매우 상승(62.5%) 또는 상승(31.7%)했다고 답변했으며, 앞으로 1년간 물가도 매우 상승(48.0%) 또는 상승(45.0%)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93.0%)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 지난 1년간 물가 체감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안정	56	1.1
안정	122	2.3
상승	1,702	32.5
매우 상승	3,358	64.1
합계	5,238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44〉 향후 1년간 물가 전망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안정	57	1.1
안정	179	3.4
상승	2,419	46.2
매우 상승	2,583	49.3
합계	5,238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5. 생계비

최근 한 달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생계비 총액은 200~300만 원 미만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200만 원 미만(28.6%), 300~400만 원 미만(1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최근 한 달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생계비 총액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251	4.9
100~200만 원 미만	1,478	28.6
200~300만 원 미만	1,538	29.7
300~400만 원 미만	966	18.7
400~500만 원 미만	496	9.6
500~600만 원 미만	200	3.9
600만 원 이상	245	4.7
합계	5,174	100.0

주: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구분하여 월 생계비 총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100~200만 원 미만’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는데, 남성 노동자는 ‘200~300만 원 미만’ 응답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여성 노동자가 ‘200~300만 원 미만’(26.7%), 남성 노동자는 ‘100~200만 원 미만’(28.7%)으로 나타났다.

〈표 46〉 최근 한 달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생계비 총액 분포(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100만 원 미만	112	4.9	137	4.7
100~200만 원 미만	650	28.7	824	28.4
200~300만 원 미만	764	33.8	773	26.7
300~400만 원 미만	392	17.3	574	19.8
400~500만 원 미만	184	8.1	310	10.7
500~600만 원 미만	75	3.3	125	4.3
600만 원 이상	86	3.8	157	5.4
합계	2,263	2,900	100.0	100.0

주: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고용형태별로 월 생활비 총액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100~200만 원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은 ‘200~300만 원 미만’이 3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규직이 ‘200~300만 원 미만’(27.5%), 비정규직이 ‘100~200만 원 미만’(29.7%)으로 나타났다.

〈표 47〉 최근 한 달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생계비 총액 분포(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명)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158	4.6	82	5.1
100~200만 원 미만	963	28.1	475	29.7
200~300만 원 미만	942	27.5	560	35.0
300~400만 원 미만	674	19.7	253	15.8
400~500만 원 미만	367	10.7	123	7.7
500~600만 원 미만	138	4.0	55	3.4
600만 원 이상	185	5.4	51	3.2
합계	3,427	100.0	1,599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8〉 참조).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생계비 구간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100~200만 원 미만’이었으며, 비율은 각각 59.5%, 37.6%였다. 3인 가구는 ‘200~300만 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다.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300~4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았는데, 비율은 각각 26.3%, 22.1%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가장 비율이 높은 월 생계비 구간을 살펴보면(〈표 49〉 참조), 5인 미만, 30~99인, 100~299인 사업체 노동자의 경우 ‘100~200만 원 미만’ 응답률이 각각 27.6%, 32.3%, 28.5%로 가장 높았으며, 5~19인, 20~29인,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는 ‘200~300만 원 미만’ 비율이 각각 30.6%, 40.1%, 26.1%로 가장 높았다.

〈표 48〉 가구 규모별 최근 한 달 생계비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53	13.3
	100~200만 원 미만	684	59.5
	200~300만 원 미만	242	21.0
	300~400만 원 미만	58	5.0
	400~500만 원 미만	9	0.8
	500~600만 원 미만	1	0.1
	600만 원 이상	3	0.3
	소계	1150	100.0
2인 가구	100만 원 미만	46	5.0
	100~200만 원 미만	345	37.6
	200~300만 원 미만	308	33.6
	300~400만 원 미만	153	16.7
	400~500만 원 미만	32	3.5
	500~600만 원 미만	12	1.3
	600만 원 이상	21	2.3
	소계	917	100.0
3인 가구	100만 원 미만	20	1.6
	100~200만 원 미만	229	17.9
	200~300만 원 미만	539	42.1
	300~400만 원 미만	292	22.8
	400~500만 원 미만	117	9.1
	500~600만 원 미만	39	3.0
	600만 원 이상	45	3.5
	소계	1281	100.0
4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7	1.2
	100~200만 원 미만	155	10.9
	200~300만 원 미만	365	25.7
	300~400만 원 미만	373	26.3
	400~500만 원 미만	272	19.2
	500~600만 원 미만	113	8.0
	600만 원 이상	123	8.7
	소계	1418	100.0
5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미만	15	3.7
	100~200만 원 미만	65	15.9
	200~300만 원 미만	84	20.6
	300~400만 원 미만	90	22.1
	400~500만 원 미만	66	16.2
	500~600만 원 미만	35	8.6
	600만 원 이상	53	13.0
	소계	408	100.0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49〉 최근 한 달 생계비 분포(사업체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100만 원 미만	43
	100~200만 원 미만	148
	200~300만 원 미만	144
	300~400만 원 미만	101
	400~500만 원 미만	57
	500~600만 원 미만	20
	600만 원 이상	24
	소계	537
5~19인	100만 원 미만	73
	100~200만 원 미만	399
	200~300만 원 미만	418
	300~400만 원 미만	245
	400~500만 원 미만	118
	500~600만 원 미만	54
	600만 원 이상	57
	소계	1,364
20~29인	100만 원 미만	23
	100~200만 원 미만	177
	200~300만 원 미만	268
	300~400만 원 미만	103
	400~500만 원 미만	55
	500~600만 원 미만	23
	600만 원 이상	20
	소계	669
30~99인	100만 원 미만	62
	100~200만 원 미만	421
	200~300만 원 미만	368
	300~400만 원 미만	222
	400~500만 원 미만	132
	500~600만 원 미만	46
	600만 원 이상	51
	소계	1,302
100~299인	100만 원 미만	26
	100~200만 원 미만	207
	200~300만 원 미만	188
	300~400만 원 미만	161
	400~500만 원 미만	69
	500~600만 원 미만	24
	600만 원 이상	51
	소계	726
300인 이상	100만 원 미만	24
	100~200만 원 미만	125
	200~300만 원 미만	149
	300~400만 원 미만	134
	400~500만 원 미만	65
	500~600만 원 미만	32
	600만 원 이상	42
	소계	571

주 :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6. 응답 노동자 임금의 가계 내 역할

응답 노동자 10명 중 거의 6명(58.0%)은 본인의 임금이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고 답하였다.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2.6%였으며,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7.3%로 나타났다. 응답 노동자 10명 중 8명은 본인 임금이 가구의 주 또는 보조 소득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응답자 임금의 가계 내 역할(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계의 주 소득원	3,001	58.0	80.6
가계의 보조 소득원	1,170	22.6	
주로 개인 소비용	894	17.3	
기타	109	2.1	
합계	5,174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구분하여 본인 임금의 가계 내 역할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노동자 모두 본인 임금이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7.2%,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본인 임금의 가계 내 역할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본인 임금이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2%,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 응답자 임금의 가계 내 역할(성별·고용형태별)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가계의 주 소득원	1,748	77.2	1,248	43.0	1,993	58.2	949	59.3
가계의 보조 소득원	205	9.1	965	33.3	745	21.7	390	24.4
주로 개인 소비용	269	11.9	620	21.4	638	18.6	222	13.9
기타	41	1.8	67	2.3	51	1.5	38	2.4
합계	2,263	100.0	2,900	100.0	3,427	100.0	1,599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3)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4) ‘감소’는 ‘매우 감소 + 감소’, ‘증가’는 ‘상당히 증가 + 증가’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본인 임금이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약 10명 중 7명(69.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대 다수의 고령 노동자들이 본인 임금만으로 전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대의 경우 ‘주로 개인 소비용’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 임금이 가구의 주 소득원(29.5%) 또는 보조 소득원(21.3%)이라고 답변한 응답 비율도 50.8%라는 점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절반 이상의 20대 노동자는 ‘용돈 벌이’가 아니라 가구 생계에 주로 또는 보조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노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2〉 응답자 임금의 가계 내 역할(연령대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20세 미만	가계의 주 소득원	4	14.8
	가계의 보조 소득원	3	11.1
	주로 개인 소비용	9	33.3
	기타	11	40.7
	소계	27	100.0
20~30세 미만	가계의 주 소득원	281	29.5
	가계의 보조 소득원	203	21.3
	주로 개인 소비용	443	46.6
	기타	24	2.5
	소계	951	100.0
30~40세 미만	가계의 주 소득원	1,172	63.0
	가계의 보조 소득원	334	18.0
	주로 개인 소비용	321	17.3
	기타	32	1.7
	소계	1,859	100.0
40~50세 미만	가계의 주 소득원	871	67.1
	가계의 보조 소득원	330	25.4
	주로 개인 소비용	78	6.0
	기타	19	1.5
	소계	1,298	100.0
50~60세 미만	가계의 주 소득원	485	63.1
	가계의 보조 소득원	239	31.1
	주로 개인 소비용	28	3.6
	기타	17	2.2
	소계	769	100.0
60세 이상	가계의 주 소득원	188	69.6
	가계의 보조 소득원	61	22.6
	주로 개인 소비용	15	5.6
	기타	6	2.2
	소계	270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3〉 참조). ‘5인 이상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본인 임금이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 소득원’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인 가구 87.9%, 2인 가구 62.9%, 3인 가구 54.6%, 4인 가구 41.2%, 5인 이상 가구 31.6%로 나타났다.

〈표 53〉 응답자 임금의 가계 내 역할(가구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가계의 주 소득원	1,011	87.9
	가계의 보조 소득원	15	1.3
	주로 개인 소비용	110	9.6
	기타	14	1.2
	소계	1150	100.0
2인 가구	가계의 주 소득원	577	62.9
	가계의 보조 소득원	224	24.4
	주로 개인 소비용	95	10.4
	기타	21	2.3
	소계	917	100.0
3인 가구	가계의 주 소득원	700	54.6
	가계의 보조 소득원	342	26.7
	주로 개인 소비용	216	16.9
	기타	23	1.8
	소계	1281	100.0
4인 가구	가계의 주 소득원	584	41.2
	가계의 보조 소득원	444	31.3
	주로 개인 소비용	358	25.2
	기타	32	2.3
	소계	1418	100.0
5인 이상 가구	가계의 주 소득원	129	31.6
	가계의 보조 소득원	145	35.5
	주로 개인 소비용	115	28.2
	기타	19	4.7
	소계	408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소득원 수별로 본인 임금의 가게 내 역할을 살펴보면(〈표 54〉 참조), 1인과 2인 소득자 가구에서 ‘가게의 주 소득원’이라는 응답률이 각각 89.1%,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자가 3인 이상인 가구에서는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는 답변이 각각 43.6%, 49.7%, 37.3%로 가장 많았다.

〈표 54〉 응답자 임금의 가게 내 역할(소득원 수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게의 주 소득원	1,791	89.1
	가게의 보조 소득원	56	2.8
	주로 개인 소비용	138	6.9
	기타	26	1.3
	소계	2,011	100.0
2인	가게의 주 소득원	965	46.2
	가게의 보조 소득원	807	38.6
	주로 개인 소비용	273	13.1
	기타	43	2.1
	소계	2,088	100.0
3인	가게의 주 소득원	155	23.1
	가게의 보조 소득원	203	30.3
	주로 개인 소비용	292	43.6
	기타	20	3.0
	소계	670	100.0
4인	가게의 주 소득원	61	18.9
	가게의 보조 소득원	90	28.0
	주로 개인 소비용	160	49.7
	기타	11	3.4
	소계	322	100.0
5인 이상	가게의 주 소득원	29	34.9
	가게의 보조 소득원	14	16.9
	주로 개인 소비용	31	37.3
	기타	9	10.8
	소계	83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7.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물가상승률(46.6%)과 생계비(40.0%)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계비 중에서는 가구 생계비(28.5%)가 개인 생계비(11.5%)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기업의 지불능력(1.5%), 실업률 등 고용 사정(0.9%),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3.6%), 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2.7%)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55〉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579	11.5	40.0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1,436	28.5	
경제성장률	240	4.8	
물가상승률	2,351	46.6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134	2.7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182	3.6	
실업률 등 고용 사정	45	0.9	
기업의 지불 능력	76	1.5	
합계	5,043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살펴보면, 남성은 생계비(노동자 가족 생계비 + 개인 생계비)에 답변한 비율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물가상승률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6〉 참조).

〈표 56〉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304	13.8	272	9.6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720	32.7	713	25.2
경제성장률	117	5.3	123	4.3
물가상승률	850	38.6	1,499	52.9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64	2.9	70	2.5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76	3.5	105	3.7
실업률 등 고용 사정	21	1.0	23	0.8
기업의 지불 능력	48	2.2	27	1.0
합계	2,200	100.0	2,832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표 57〉 참조),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물가상승률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6.7%,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답변도 생계비(노동자 가족 생계비 + 개인 생계비)로 같았으며, 비율은 정규직이 39.3%, 비정규직이 41.1%로 나타났다.

〈표 57〉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415	12.5	151	9.6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892	26.8	496	31.5
경제성장률	176	5.3	59	3.7
물가상승률	1,554	46.7	738	46.9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86	2.6	42	2.7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116	3.5	56	3.6
실업률 등 고용 사정	32	1.0	11	0.7
기업의 지불 능력	54	1.6	21	1.3
합계	3,325	100.0	1,574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연령대별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에 대한 인식 분포를 살펴보면(〈표 58〉 참조), 대체로 20대와 30대는 물가상승률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꼽은 비중이 높았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생계비(노동자 가족 생계비 + 개인 생계비)를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규모별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에 대한 인식 분포를 살펴보면(〈표 59〉 참조), 2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규모의 가구에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인 가구의 경우, 노동자 생계비(노동자 가족 생계비 + 개인 생계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에 대한 인식 분포를 살펴보면(〈표 60〉 참조), 5~19인 사업체 노동자를 제외하고, 모든 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5~19인 사업체 노동자의 경우 생계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58〉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연령대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20세 미만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4	15.4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3	11.5
	경제성장률	2	7.7
	물가상승률	12	46.2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0	0.0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2	7.7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	3.8
	기업의 지불 능력	2	7.7
	소계	26	100.0
20~30세 미만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108	11.6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147	15.7
	경제성장률	61	6.5
	물가상승률	548	58.6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22	2.4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26	2.8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1	1.2
	기업의 지불 능력	12	1.3
	소계	935	100.0
30~40세 미만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274	15.1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359	19.8
	경제성장률	107	5.9
	물가상승률	929	51.3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45	2.5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60	3.3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0	0.6
	기업의 지불 능력	28	1.5
	소계	1,812	100.0
40~50세 미만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98	7.8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466	37.0
	경제성장률	44	3.5
	물가상승률	529	42.0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37	2.9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55	4.4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4	1.1
	기업의 지불 능력	17	1.3
	소계	1,260	100.0
50~60세 미만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67	9.0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332	44.5
	경제성장률	22	2.9
	물가상승률	253	33.9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26	3.5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27	3.6
	실업률 등 고용 사정	8	1.1
	기업의 지불 능력	11	1.5
	소계	746	100.0
60세 이상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28	10.6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129	48.9
	경제성장률	4	1.5
	물가상승률	80	30.3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4	1.5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12	4.5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	.4
	기업의 지불 능력	6	2.3
	소계	264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59〉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가구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271	24.2	40.1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178	15.9	
	경제성장률	68	6.1	
	물가상승률	518	46.3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30	2.7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33	2.9	
	실업률 등 고용 사정	5	0.4	
	기업의 지불 능력	17	1.5	
	소계	1,120	100.0	
2인 가구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79	8.8	43.5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310	34.7	
	경제성장률	43	4.8	
	물가상승률	379	42.4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32	3.6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32	3.6	
	실업률 등 고용 사정	6	0.7	
	기업의 지불 능력	13	1.5	
	소계	894	100.0	
3인 가구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89	7.1	39.5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403	32.3	
	경제성장률	52	4.2	
	물가상승률	589	47.3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33	2.6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47	3.8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4	1.1	
	기업의 지불 능력	19	1.5	
	소계	1,246	100.0	
4인 가구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104	7.5	38.9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436	31.4	
	경제성장률	64	4.6	
	물가상승률	657	47.4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30	2.2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60	4.3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5	1.1	
	기업의 지불 능력	21	1.5	
	소계	1,387	100.0	
5인 이상 가구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36	9.1	36.6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109	27.5	
	경제성장률	13	3.3	
	물가상승률	208	52.5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9	2.3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10	2.5	
	실업률 등 고용 사정	5	1.3	
	기업의 지불 능력	6	1.5	
	소계	396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60〉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사업체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미만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10.0	39.5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29.6	
	경제성장률	3.8	
	물가상승률	46.4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2.1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4.6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0	
	기업의 지불 능력	2.5	
	소계	100.0	
5인~19인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16.6	45.5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28.9	
	경제성장률	4.4	
	물가상승률	43.4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2.2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2.5	
	실업률 등 고용 사정	.7	
	기업의 지불 능력	1.4	
	소계	100.0	
20인~29인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9.0	39.6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30.5	
	경제성장률	5.7	
	물가상승률	46.3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2.5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3.7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1	
	기업의 지불 능력	1.2	
	소계	100.0	
30인~99인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11.2	37.0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25.7	
	경제성장률	4.9	
	물가상승률	49.5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2.7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4.1	
	실업률 등 고용 사정	.6	
	기업의 지불 능력	1.2	
	소계	100.0	
100인~ 299인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8.3	38.0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29.7	
	경제성장률	5.2	
	물가상승률	46.8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3.3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3.8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4	
	기업의 지불 능력	1.4	
	소계	100.0	
300인 이상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8.2	37.3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29.0	
	경제성장률	4.1	
	물가상승률	47.7	
	기업 이익 중 노동자의 임금 비중	3.8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3.9	
	실업률 등 고용 사정	1.1	
	기업의 지불 능력	2.2	
	소계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8.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 58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대 다수인 84.8%가 부족하다(부족 + 매우 부족)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10.2%, ‘충분하다’(충분 + 매우 충분)는 4.9%에 불과했다.

〈표 61〉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부족	2,009	38.8
부족	2,381	46.0
적당	530	10.2
충분	157	3.0
매우 충분	97	1.9
합계	5,174	100.0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성별로 구분하여, 올해(2023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부족하다(부족 + 매우 부족)는 응답률이 각각 81.5%, 87.5%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여성의 ‘부족하다’ 응답률이 남성보다 6.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62〉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매우 부족	835	36.9	1,170	40.3
부족	1,009	44.6	1,368	47.2
적당	274	12.1	255	8.8
충분	82	3.6	74	2.6
매우 충분	63	2.8	33	1.1
합계	2,263	100.0	2,90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올해(2023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4.8%, 85.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9.6%, 11.4%에 불과했다.

〈표 63〉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부족	2,907	84.8	1,362	85.2
적당	328	9.6	182	11.4
충분	192	5.6	55	3.4
합계	3,427	100.0	1,599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3) ‘부족’은 ‘매우 부족 + 부족’, ‘충분’은 ‘매우 충분 + 충분’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표 64〉 참조), ‘부족하다’ 응답률(부족 + 매우 부족)은 1인 가구 81.7%, 2인 가구 85.6%, 3인 가구 84.2%, 4인 가구 87.1%, 5인 이상 가구 86.3%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4인 이상의 가구에서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표 65〉 참조), ‘부족하다’ 응답률(부족 + 매우 부족)은 20대 77.5%, 30대 82.6%, 40대 89.5%, 50대 90.2%, 60대 이상 90.0%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의 중·고령 노동자 계층에서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가구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매우 부족	348	30.3
	부족	591	51.4
	적당	133	11.6
	충분	48	4.2
	매우 충분	30	2.6
	소계	1,150	100.0
2인 가구	매우 부족	364	39.7
	부족	421	45.9
	적당	88	9.6
	충분	30	3.3
	매우 충분	14	1.5
	소계	917	100.0
3인 가구	매우 부족	471	36.8
	부족	608	47.5
	적당	149	11.6
	충분	30	2.3
	매우 충분	23	1.8
	소계	1,281	100.0
4인 가구	매우 부족	646	45.6
	부족	589	41.5
	적당	125	8.8
	충분	35	2.5
	매우 충분	23	1.6
	소계	1,418	100.0
5인 이상 가구	매우 부족	180	44.1
	부족	172	42.2
	적당	35	8.6
	충분	14	3.4
	매우 충분	7	1.7
	소계	408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표 65〉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연령대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20세 미만	매우 부족	10	37.0
	부족	9	33.3
	적당	3	11.1
	충분	3	11.1
	매우 충분	2	7.4
	소계	27	100.0
20~30세 미만	매우 부족	333	35.0
	부족	404	42.5
	적당	149	15.7
	충분	44	4.6
	매우 충분	21	2.2
	소계	951	100.0
30~40세 미만	매우 부족	619	33.3
	부족	916	49.3
	적당	215	11.6
	충분	70	3.8
	매우 충분	39	2.1
	소계	1,859	100.0
40~50세 미만	매우 부족	607	46.8
	부족	555	42.8
	적당	91	7.0
	충분	23	1.8
	매우 충분	22	1.7
	소계	1,298	100.0
50~60세 미만	매우 부족	345	44.9
	부족	349	45.4
	적당	53	6.9
	충분	12	1.6
	매우 충분	10	1.3
	소계	769	100.0
60세 이상	매우 부족	95	35.2
	부족	148	54.8
	적당	19	7.0
	충분	5	1.9
	매우 충분	3	1.1
	소계	27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20세 미만'은 표본 수가 27명으로 너무 작아 제외함

9.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

2024년 적용될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250만 원 이상(시급 12,000원 이상)’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 230~249만 원(시급 11,000~11,900원)’(30.6%), ‘월 210~229만 원(시급 10,050~10,900원)’(25.4%), ‘월 210만 원 미만(시급 10,050원 미만)’(1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전체)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10,050원 미만)	610	12.1
월 210~229만 원 (시급 10,050~10,900원)	1,283	25.4
월 230~249만 원 (시급 11,000~11,900원)	1,541	30.6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1,609	31.9
합계	5,043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월 250만 원 이상’은 ‘월 250~269만 원’과 ‘월 270만 원 이상’을 합한 값임

성별로 구분하여,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은 ‘월 250만 원 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월 230~249만 원’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7〉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성별)

구분	남성		여성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10,050원 미만)	277	12.6	330	11.7
월 210~229만 원 (시급 10,050~10,900원)	477	21.7	804	28.4
월 230~249만 원 (시급 11,000~11,900원)	664	30.2	873	30.8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782	35.5	825	29.1
합계	2,200	2,832	100.0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성별 교차분석은 ‘그 이외의 성’을 제외함
3) ‘월 250만 원 이상’은 ‘월 250~269만 원’과 ‘월 270만 원 이상’을 합한 값임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2024년에 적용된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정규직은 ‘월 230~249만 원’이 30.0%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은 ‘월 250만 원 이상’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8〉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고용형태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10,050원 미만)	463	13.9	126	8.0
월 210~229만 원 (시급 10,050~10,900원)	912	27.4	345	21.9
월 230~249만 원 (시급 11,000~11,900원)	998	30.0	506	32.1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952	28.6	597	37.9
합계	3,325	100.0	1,574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고용형태별 교차분석에서 ‘기타’ 응답은 제외함
 3) ‘월 250만 원 이상’은 ‘월 250~269만 원’과 ‘월 270만 원 이상’을 합한 비율임

가구 규모별로 구분하여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표 69〉 참조), 1인 가구는 ‘월 230~249만 원’이 36.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규모의 가구들은 모두 ‘월 25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이하 소득원 수)별로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면(〈표 70〉 참조), 외벌이 가구가 2인 이상 소득원 가구에 비해 ‘월 230만 원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구간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표 71〉 참조), 20대 ‘월 210~229만 원’(33.4%), 30대 ‘월 230~249만 원’(36.8%)이며, 40대에서 60대 이상까지는 ‘월 25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았는데, 비율은 각각 37.3%, 35.8%, 43.9%로 나타났다.

〈표 69〉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가구 규모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29	11.5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266	23.8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412	36.8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313	27.9
	소계	1129	100.0
2인 가구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07	12.0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224	25.1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260	29.1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303	33.9
	소계	894	100.0
3인 가구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36	10.9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314	25.2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378	30.3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418	33.5
	소계	1246	100.0
4인 가구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83	13.2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380	27.4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374	27.0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450	32.4
	소계	1387	100.0
5인 이상 가구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55	13.9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99	25.0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117	29.5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125	31.6
	소계	396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월 250만 원 이상'은 '월 250~269만 원'과 '월 270만 원 이상'을 합한 비율임

〈표 70〉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소득원 수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200	10.2	31.8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421	21.6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672	34.4	68.2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660	33.8	
	소계		1,953	100.0
2인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256	12.5	39.1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544	26.6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596	29.2	60.9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647	31.7	
	소계		2,043	100.0
3인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96	14.7	46.7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209	32.0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174	26.6	53.3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174	26.6	
	소계		653	100.0
4인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47	15.1	44.6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92	29.5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77	24.7	54.4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96	30.8	
	소계		312	100.0
5인 이상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1	13.4	34.1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17	20.7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22	26.8	65.9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32	39.0	
	소계		82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월 250만 원 이상'은 '월 250~269만 원'과 '월 270만 원 이상'을 합한 비율임

〈표 71〉 2024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연령대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20세 미만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5	19.2	26.9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2	7.7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6	23.1	73.1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13	50.0	
	소계	26	100.0	
20~30세 미만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63	17.4	50.8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312	33.4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238	25.5	49.2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222	23.7	
	소계	935	100.0	
30~40세 미만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96	10.8	34.4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428	23.6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667	36.8	65.6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521	28.8	
	소계	1,812	100.0	
40~50세 미만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140	11.1	34.8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299	23.7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351	27.9	65.2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470	37.3	
	소계	1,260	100.0	
50~60세 미만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73	9.8	34.9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187	25.1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219	29.4	65.1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267	35.8	
	소계	746	100.0	
60세 이상	월 210만 원 미만 (시급 약 10,050원 미만)	33	12.5	33.3
	월 210~229만 원 (시급 약 10,050~10,900원)	55	20.8	
	월 230~249만 원 (시급 약 11,000~11,900원)	60	22.7	66.7
	월 250만 원 이상 (시급 12,000원 이상)	116	43.9	
	소계	264	100.0	

주 : 1) 결측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문항별로 통계표 응답률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월 250만 원 이상'은 '월 250~269만 원'과 '월 270만 원 이상'을 합한 비율임

Ⅲ. 요약 및 시사점

민주노총은 2023년 3월 20일 ~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 및 임금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적인 온라인 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 무직자, 사업주 등을 제외하고, 미조직 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자 중 거의 절반(49.8%)이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며, 역시 절반가량(50.2%)이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4명 중 1명(23.6%)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보여준다.

둘째,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 비중은 약 5명 중 1명(19.8%)꼴로 나타났다. 여성(21.7%)이 남성(17.2%)보다, 비정규직(26.8%)이 정규직(15.8%)보다 실직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꼽은 가장 중요한 실직 사유는 ‘자발적 이직’(32.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 어려움’(25.6%),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20.1%) 등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는 2.6%에 불과했다.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실직 사유로 꼽은 비율은 3%대 미만이었다.

넷째, 10명 중 7명(69.6%)은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증가+상당히 증가)고 응답했다([그림 3] 참조). 규모가 작은 가구일수록 생활비 증가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1인 가구에서는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증가+상당히 증가)고 답변한 비율이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지난 1년간 물가가 상승(매우 상승+상승)했고, 앞으로 1년간 물가도 상승(매우 상승+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많이 오른 항목으로는 난방바전기세(40.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식비(33.9%)가 순위로 꼽혔다.

다섯째, 본인 임금이 가계의 주 소득원 또는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자 10명 중 8명(80.6%)이었으며,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7.3%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69.6%)이었는데, 이는 상당수 고령 노동자들이 본인 임금만으로 전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46.6%)과 생계비(40.0%)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계비 중에서는 ‘노동자와 가족 생계비’(28.5%)에 대한 응답률이 ‘노동자 개인 생계비’(1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남성은 생계비(46.5%), 여성은 물가상승률(52.9%)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는 물가상승률, 4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생계비에 대한 선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의 체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10명 중 8~9명(84.8%)은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 58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부족 46.0% + 매우 부족 38.8%)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한편,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연령이 많아질수록 현행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10명 중 9명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일곱째, 2024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월 250만 원 이상(시급 12,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 230~249만 원(시급 11,000~11,900원)’이 30.6%로 나타났다. 대략 노동자 3명 중 2명(62.5%)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 원(시급 약 11,000원) 이상을 꼽았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 230~249만 원’(28.7%)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제외한 2인 이상 규모 가구에서는 ‘월 250만 원 이상’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조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